

큰스님 수행한담

불교의 시작이며 끝



◇도천스님은 미수의 나이가 되기까지 40여년을 헤쳐가 전에 밖에 나가 해지기 전까지 일을 해왔다. 일하는 수행은 수월→묵연→도천스님으로 이어진 정규이며 가 풍이다.

더러우. 그렇게 몇 달을 버티며 수행했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더군요. 지금만 해도 그래. 뭐 우리가 금강산 유람을 갈수 있다며 떠들고 법석을 부리는 모양인데 이미 내용적으로 폐사가 된 곳에, 그것도 신다면 몰라도 눈으로 잠깐 봐서 팔하잖나 싶단 말이지. 살 수 없는 곳이기에 큰 의미가 없는 거야. 해방후 도저히 마하연서 살 수 없어 그 길로 남쪽으로 내려와 뱃해동안 해인사 범어사 칠불암 강원도 등지로 선방에 다니기도 했지. 그러나 인연이 따로 있어. 바로 여기 태고사에 와 보고는 처음에 깜짝 놀랐지. 여기가 행여 금강산 자락은 아닌가 하고 말야. 그 우람하고 오밀조

지금까지 산겨야. 난리통에 죽을 뻔했던 내가 다시 살게된 것은 순전히 부처님 덕분이고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제대로 도량을 정비하는 것 아니겠어. 우리가 부처님 같이는 못하더라도 천 만분의 일이라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해. 샅된 것이 많은 세상일수록 정법을 지키고 검약하려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거든. 어디 그 뿐인가. 마음자리를 살펴야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눈이나 귀가 보고 듣는 것은 아닌 거야. 내 마음 가운데 주인공이 있지만 그걸 몰라. 감각해. 귀로 들어도 모르니 귀도둑, 음식을 먹으면서도 모르니 혀도둑, 밤새를 맡고

이 가파른 산자락에 방사를 짓고 50년 불사를 하고 있는 것은 후대사람이 편히 공부하고 수행하도록 터를 닦아두기 위해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이지. 검소하게 살지 못하고 남을 돕지 않아서 오는 과보인 셈이지. 나라도 개인이든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법이야. 요즘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고 어떻게 서든 편하려고 기를 쓰거든. 호강하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차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탐심 진심 치심으로 작용해 나타나고 결국에는 수행과는 전혀 먼 생활을 하게 하는 게야. 열심히 일해 봐. 탐진치 3독심이 눈속듯 사라지고 온갖 번뇌를 여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구. 많은 잡생각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저 일에 집중해서 온 정성을 모두어 일해보라는 말이지. 그러다보면 상(相)이라는 마음이 사라져. 부지불식간에. 상을 버리는 것이 불교의 처음이요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내가 있다'는 헛된 집착 그것이 상인데 그 상으로 3독심이 생기고 그 3독심으로 무수한 번뇌가 싹트는 거야. 그러니까 하

모가 나게 마련이지. 그런데 상을 때는 일이란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세.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생을 두고 화두로 삼으며 정진하고 수행해야 하거든.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자신을 봐야 해. 그리고 경생을 공부하고 일체중생을 위해 사는 보살행을 펴라구. 사람됨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전 다들 알잖아. 세상이 물질이 좋아진만큼 공부여건도 나아진 편이지. 부지런히 공부할 하란 말이야. 말(言)을 앞세우지 말고 행(行)을 우선으로 여겨야 해. 말은 아무리 지껄여도 쓸데 없는 거야. 할 말만 해야지. 공부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나의 스승이신 묵연스님은 일생토록 말씀이 없으셨지. 금강산 마하연의 암자인 만해암에서 벽장만 쳐다보고 앉아서 묵언하셨거든. 그렇게 금강산 도인이라 알려진 우리 스님을 15년간 시봉했지. 나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요,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말씀해 뵈곤 모이던 잣나무나 심고 또 하나 정성들여 심으면서 불사를 하고 있지. 도량짓는 불사도 마찬가지야. 축대 하나 쌓고 나서 다시 축대를 또 올리고 해서 지금까지 온게야. 불사는 지극 정성으로 해야 해. 그런데 요즘 보면 절 짓는 불사나 부처님 조성하는 불사나 너무나 급하고 성의없이 하는 거나 아닌지 우려가 많이 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데 그게 몇년도 채 안 걸려. 외양만 크고 화려하다고 다가 아닌데.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해. 부처님 일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원을 세워 지극정성으로 해야 하는 거야. 도량밖으로 나가면 비싼 택시 안타고 도사락을 싸들고 다녀. 한촌이라도 절약하면 불사에 보탬수 있잖아. 평생 내 몸 안돌보고 싶어도 아프지 않았어. 병원이란 델 기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하는 것 힘들다거나 회피하려 한 적이 없지. 오히려 잠시라도 안일하고 편안함이 오려 하면 용납치 않았거든. 그게 바로 계몽의 시작이니까. 힘이 드러가 수행이 되는 거고, 수행이 되니까 그저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정리=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상을 갖고 있으면 나를 바로 볼 수 없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하심

말 이론 산세는 마하연과 너무 흡사했어. 그래서 정착하게 됐지. 사실 오갈 데도 없었고, 그때는 아직 정화전이라 대척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는데 머슴처럼 일만 하고 살기 시작했어. 일제때 우리 불교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왜색불교를 강요할 때 스님들을 무리하게 취척하게 했을 때니까. 당시 비구들은 대척승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찰에 방부허락을 받을 수 없어 탁발하며 토굴로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지. 그나마 나는 여기서 방부들이고 살던 중인데 6·25전쟁이 터진거야. 그때 그 난리통에 사실 죽을 목숨인데... 부처님 덕분엔 이렇게 산 것이지. 1·4후퇴때 인민군이 들어와서 당시 그렇게 우람했던 태고사를 죄 태웠어. 본당과 산신각만 덩그러니 남았지. 그후 태고사는 정화됐고 첫 주지로 내가 들어와

도 모르니 코도둑 아니냐구. 그래서 도인이 안나오고 도독만 많아. 우리가 한마음으로 절제하게 신심있고 원력을 세우면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지. 무슨 고통이 따르더라도 바른 생각, 바른 일로 믿고 가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말이지. 고평으로 가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히 나빠지거든. 그리고 기도는 일념으로 해야 해. 한마음으로 해야 성취될 수 있단구. 특히, 지혜있는 사람은 쌀 물 나무로 밥을 짓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래로 평생을 밥을 지으려 하지만 절대로 밥이 되지 않잖아. 지혜로 바른 일 하게되면 나라도 살고 중생도 다 좋게 된다 이 말이지. 중생사. 나라일 모든 것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게야.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아우성들이고 실제 고통속에서

심(下心)하는 것을 비굴하다고 생각해서 안돼. 불자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믿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세를 지녀야 하지. 상을 가지면 나를 바로 보지 못해. 아심을 버리지 못하면 집착이 있게 되고 다른 큰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지. 아상을 떼면 사람은 더 큰 세계를 볼수 있지만, 아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며 참다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거든.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고 남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늘 겸손하고 하심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해야 해. 상을 가진 사람은 자비스러울 수가 없고 남을 위해 행동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럿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중생활에 원만할 수가 없거든. 나를 주장하는 까닭에

나의 수행일기



조 동 규

(서울 경찰청 정보2실장)

형님이 한분 계셨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부모님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있을때 태어난 나는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어머니가 내가 여섯살때 돌아가시자 할머니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당신의 죄인양 열심히 어린 손자를 데리고 절에 가 지극 정성으로 기도를 하셨다. 그때 두손에 합장주를 꼭 쥐고, 일심으로 부처님전에 절을 올리던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내게 큰 힘으로 남아있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 내가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마치 축복이 내리는 불비가 대지를 적어내 만물을 약동하게 하듯이 할머니의 지극한 불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셨는가를 생각할 때면 불교포교는 반드시 유아포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틀리는 것을 보았다. 그로 인해 믿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따라 다녔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길을 여러곳에 알아보다가 우연히 신문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신입생 모집을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그래! 불교대학원에 가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자'는 다짐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대학을 졸업한지 수십년 만에 강의실에 앉아서 평소 갈망하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 환희로움이란 말로 다 할수 없었다. 훌륭한 스승님들의 명강의는 나의 불교에 대한 갈증을 많이 풀어 주었다. 성별도 직업도 나이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부

열심히 불서 읽었지만 허전한 마음 불교대학원 입학 체계적 불교공부

아버님께서 사 고로 돌아가신 후 내가 집안의 기둥으로서 중임을 감고 살아왔다. 동생들도 모두 다 나의 말을 잘 따라 주었고, 특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증표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 했는데 한결같이 불교를 믿는 짝을 찾았다. 불심은 깊었지만 나의 불교공부는 처음부터 체계적이지는 못했다. 바쁜 업무와 생활속에서 불교에 대해 알고 싶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평소 사무실에서 부지런히 불교방송을 듣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였다. 하지만 불교가 워낙 방대한 것이어서 그런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것이 불교서적을 통한 불교공부였다. 법륜스님의 <젊은 불자를 위한 수행론>,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현 재훈씨의 소설 <대석가> 등 많은 책을 닦치는대로 읽었다. <젊은 불자를 위한 수행론>에서 무주상 보시에 관해 읽고서는 가슴에 와 닿는 환희심을 느꼈는데, 그날 밤 꿈에 환희심이 환히

처님의 큰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특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보살님들이었는데, 강의 듣는 것도 진지하고 열심이었다. 조선시대에 억불숭유정책으로 인한 불교 탄압에도 꿋꿋이 전통을 이어온 것은 우리들의 어머니인 이 보살님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나의 불교공부에 더욱 자극을 주었다. 그렇게 공부가 익어갈 무렵 학생 보살님들의 신심은 굳고 누구보다도 모든 일에 열심이었던 경전공부시간에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불교대학원 입학 면접시에 당시 원장이신 목정배 교수님의 물음에 "어려운 경전을 읽고 체계있게 하여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나라 일조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었기에 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금강경>을 한 자 한 자 해설하고 풀이해 한문을 전혀 모르는 불자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학습서를 만들겠다고 말이다.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4th anniversary of the Buddhist Relief Association. The main headline reads: '법공양의 마음으로 불교발전에 기여해온 정진 4년을 축하합니다.' Below this, there are four columns of information: 1. International Buddhist Association (International Buddhist Association) with contact info for Gyeongju. 2. Buddhist Relief Association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with contact info for Gyeongju. 3. Buddhist Relief Association (모봉산 대관불교 조계종 혜원정사) with contact info for Gyeongju. 4. Buddhist Relief Association (장복철강) with contact info for Gyeongju. At the bottom right, there is a section for '황토방 수정탕' (Hwangto-bang Sujungtang) with contact info for Gyeongju.